



Greetings! My name is Sister Mary Brenda Helis, and I appreciate sharing a bit of my story. Born in Johnstown PA, the historic “Flood city of the year 1889,” it is noteworthy that even then Sisters of Charity were aiding the needy there. Born to Michael and Sabina Helis, I was the eldest of four siblings. I grew up in a strong Catholic home. Our varied neighborhoods had several schools, both public and parochial, so being a teacher was a goal I prayed for early on. In grade school, I was taught by the Vincentians and the Mercies, very able women.

I first met the Sisters of Charity at Johnstown Catholic High School especially in the graciousness of Sister Mary Clement (Sister Jane McNulty), our Biology instructor. She warmly encouraged students to aid in her lab. One day when I was helping there, she said simply “You can be both a teacher and a Sister; think and pray about it.” A single visit to Seton Hill’s complex confirmed that intent. Now 65 years have passed, and God’s plan, good advice from others, and my life’s destinations all still amaze me. God’s care for his people is boundless.



For 9 years, I relished teaching grade schoolers in three dioceses, then came 18 years in six Catholic high schools in both Arizona and Pennsylvania. It was a delight to watch young minds develop. Chiefly I taught English and was in administration twice. David’s psalms and Shakespeare’s plays provided valuable lessons for the students and the teacher alike. I earned much satisfaction in educating. In 1982 while at Sacred Heart High School in Shadyside, a new venture arose: co-managing St Theresa Plaza, Munhall, a HUD high rise dwelling for Senior and

Handicapped Citizens. Working and living with these wonderful tenants until 1990 was deeply enriching and vital preparation for my next position. By then my mother required more assistance, so I returned to Johnstown. Shortly afterward, an even wider role emerged, Pastoral Care Coordinator at Laurel Crest, the Cambria County Nursing Home in Ebensburg PA. From 1990 to 2001, it was extraordinary seeing the Beatitudes in action with clients, families, and employees in every segment of life meriting service.



Mother’s health declined and by 2005, our caring Community admitted her to Caritas Christi as an infirmiry resident, while I worked at the Adult Day Care Center in the same building. I retired in 2017, still volunteering with seniors at the Center, and having the benefits of ministering to our Sisters on the second floor. They are so deserving and their presence so assuring. It is a privilege to serve others. And I thank God for bringing me this far on my life’s road. I ask His

continued mercy and guidance, inspired by a favorite quote... “For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Each day I value my vocation more and more.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브랜다 헬리스 수녀(Sister Mary Brenda Helis)입니다. 수녀님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존스타운에서 태어났습니다. 존스 타운은 1889년 기록적인 대홍수가 발생한 도시예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이 그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아버지 마이클 헬리스와 어머니 사비나(Michael and Sabina Helis) 슬하에서 네 명의 자녀 중 큰 딸로 태어나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동네에는 여러 공립학교와 교구 학교가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기를 기도했답니다. 제가 다닌 초등학교에서는 빈첸시오회 수녀님들과 자비의 수녀님들이 가르치셨는데 매우 훌륭하신 분들이셨지요.

그리고 우리 수녀회의 수녀님들을 존스타운 가톨릭 고등학교(Johnstown Catholic High School)에서 처음 만났어요. 특히 생물 선생님이었던 메리 클레멘트 수녀님(Sister Mary Clement; Sister Jane McNulty, 제인 맥널티 수녀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지요. 수녀님은 학생들이 수녀님의 실험실에서 도와주도록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실험실에 있을 때, 저에게



'브랜다! 너는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수도자도 될 수 있단다. 한번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씨튼 힐 을 한번 방문했는데 그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6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는 하느님의 계획과 다른 이들이 하는 조언, 또 제 삶에서 제가 도달하는 일들에 놀라고는 한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지요.



저는 9년 동안 세 교구의 초등학교에서 가르쳤고, 그 후에 애리조나주와 펜실베이니아주의 여섯 개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18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지요. 주로 영어를 가르쳤고 두 번의 행정직도 했습니다. 다윗의 시편과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모두 가치 있는 교훈을 주지요. 저는 교육 사도직을 하면서 매우 흡족했어요. 그런데 1982년 세디사이드의 세크레드 하트 고등학교(Sacred Heart High School) 에 근무하는 동안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먼홀에 위치한 노인 및 장애인 시설인 세인트 테레사 플라자(St Theresa Plaza 미국 도시주거개발부 시설)를 함께 관리 운영하는 것이었지요. 1990년까지 이들과 함께 살고 일했던 경험을 통해 풍요롭고 생명력 있게 저의 다음 사도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다시 존스 타운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에벤스버그에 있는 캠브리아 카운티 요양원인 로렐 크레스트(Laurel Crest)에서 원목 담당을 하게 되었어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생명과 연결된 분야에서 봉사하며 환자와 가족, 고용주들과 함께 일하면서 성경에서의 행복선언을 깨닫게 된 것은 참으로 특별했지요.



어머니의 건강이 약해지자 수도회 돌봄 위원회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2005년까지 까리타스 크리스티에서 머무시도록 해주었고 그 동안 저는 까리타스 크리스티에 있는 성인 데이케어 센터에서 사도직을 했습니다. 2017년 은퇴를 한 후 지금도 센터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까리타스 크리스티 2층의 수녀님들에게 봉사하고 있어요. 2층에 계신 수녀님들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봉사를 한다는 것은 큰 특권이기도 하지요. 저는 제 삶의 여정에서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오신 하느님께 감사 드리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 분의 자비와 인도를 계속해서

청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 더 저의 성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